



“영상의학 발전 시대의 의료윤리” 특별호 발간에 부쳐

최연현 (의료윤리 특별호 초청 편집장)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은 최근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영상의학과 의사의 역할은 이전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책임도 커졌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1). 인공지능은 영상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소유권, 안전성 등 이에 동반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늘어나는 원격 판독업무에 대해서도 환자의 신뢰, 저수가 또는 금전주의 관점, 임상정보와 분리됨으로 인한 판독오류 가능성 등 많은 우려가 개재되어 있다. 의료계의 해묵은 문제들, 즉 직업 현장에서의 대인관계, 이해 상충, 환자 안전관리에 더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저자됨의 위반과 표절은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또한, 영상의학과 현장에서와 임상 연구에 관한 개인정보관리에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 못지않게 영상의학과 검사량과 판독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 인력 공급이 미흡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탈진되고 있다. 영상의학과 전공의들도 과도한 업무량, 특히 당직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회와 보건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병원내 성희롱, 성폭력, 언어 폭력, 육체적 폭력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구성원들의 관심과 주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적절한 수련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대한영상의학회지 이번 호에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의료윤리, 출판 윤리적 관점에서의 저자됨과 부적절한 저자됨, 연구 및 진료에서의 이해 상충, 영상의학 검사량 폭증에 연관된 영상의학과 의사의 탈진, 방사선 피폭과 방사선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다룬다.

REFERENCE

1. Kim KW, Park JH, Yoon SH. Medical ethics in radiology. *J Korean Soc Radiol* 2010;62:311-317